



3면

민주 혁신계 '국민과 함께 토코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음 10월 29일) 제3402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한 이양·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
도정·여·야 협치로 발의 100일 만에 결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 성공 출범 신호탄
김관영 지사 "500만 도민 마음이 이뤄낸 쾌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 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 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관련기사·사진 3면>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 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 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지난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 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 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 했다.
한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 을) 등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켰으며,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까지 포함해 행안위 법안처리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충북 청주 상당구), 전병민(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을 직접 만나 '전 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1월 중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법률 개정 단계 단계마다 부정 적 기류가 발생할때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나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 당 의원을 만나 설득했으며, 행안부· 법사위· 본회의 심사시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물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 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 신호 탄을 울 수 있게 되었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 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 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 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 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 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 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 거"라며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 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 이다"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 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주 국회 부 의장을 각각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전북특별자 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 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 학부모 한마당' 가득 메운 인파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북도교육청 야외마당과 별관에서 '2023년 전북 학부모 한마당'이 열린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행사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전북 학부모 한마당은 전북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전북학부모협의회가 주최·주관해 열렸다. /장은성 기자

내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등록 후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후원회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입후보 제한직에 있을 경우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 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

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의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12월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금지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되었다"며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든 일정을 추진하되, 추후 확정되는 선거구로 인해 입후보에 정지와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2024년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전북도는 낮은 결혼 등으로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술비·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 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난임 시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궁 및 난관, 정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난임으로 진단 받은 경우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2024년부터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장려금은 2022년부터 중앙-광역-통폐합해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도가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 농가(57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통제 초소 추가 설치,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전북도는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회